

# ‘담양 대나무밭 농업’ 세계농업유산 지정

### 전남도, “대나무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 등재” 쾌거 농촌 공동체 유지·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자원 기대감

전라남도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담양 대나무밭 농업’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세계 각지의 독창적인 농업시스템과 생물다양성, 전통 농업지식 등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현재 21개국의 57개소 지역이 등재돼 있다.

평가를 맡았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과학자문그룹(SAG)은 ‘담양 대나무밭 농업’의 자연친화적 토지이용을 비롯 전통 농업기술, 아름다운 농업문화경관, 대나무 성장을 기원한 죽신제 등 문화·사회적 가치 등을 인정, 대나무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정했다.

담양 354개 자연마을을 대다수에 조성된 대나무밭은 죽재, 죽순, 차나무, 버섯 등 1차적인 부산물을 제공해 예로부터 생계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특히 대나무밭 주변에 형성된 수자원은 논농사에 활용돼 왔으며, 대나무는 산소 배출량이 많아 환경보전 수종으로도 인정 받고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운영을 시작한 후 전국 15개소를 지정했다. ‘담양 대나무밭 농업’은 지난 2014년 제4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래 6년 만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승격됐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총 5개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이 지정돼 있으며, 전라남도는 지난 2014년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제1호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된 이후 이



전라남도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담양 대나무밭 농업’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만성리 대밭. /전남도 제공

번이 2번째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매년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유산자의 조사 및 복원, 환경정비 등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정하용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대나

무 품목으로는 담양 대나무밭이 세계 최초로 등재돼 대나무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단순히 발굴과 보존,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 시, 취약계층 아동 자립 돕는다 정상기업, 10년간 자립지원금 기부

광주광역시와 정상기업(주)이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희망을 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종잣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정상기업(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취약계층 아동자립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자립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해 10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아동명의로 적립을 해 10년 후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할 때 종잣돈으로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정상기업(주)은 10세 이하 아동 50명(양육시설 32명, 공동생활가정 18명)에게 10년간 총 3억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아동자립 지원대상자 발굴 및 추천을 추진하고, 광주공동모금회는 아동자립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검토 및 사업비 집행을 실시한다.

이정오 정상기업(주) 대표이사는 “성인이 되었을 때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며 “매년 후원아동을 늘려 300명 정도의 아동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며, 궁극적으로는 회사 수익금 전액을 사회공헌 활동에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오현미 기자

## 엑센트리벤처스, AI기업 육성 광주센터 개소

글로벌 투자 전문기업인 ㈜엑센트리벤처스가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 광주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광주 인공지능 기업 발굴 및 육성에 나섰다.

엑센트리벤처스는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지난 5월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5월26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지난날 30일 ‘광주센터’를 개소했다.

엑센트리벤처스는 유망기업 발굴 및 창업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투자전문 회사로 투자펀드 운용 및 기술 컨설팅, 액셀러레이터 전문기업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엑센트리벤처스 광주센터에서 그간 추진해왔던 광주기업 청호환경개발(주) 기업과 AI 관외기업 ㈜알파도 기업과의 투자협약식도 병행해 진행됐다.

청호환경개발(주)는 환경분야 우수기술인 저영향개발기술(LID) 분야에서 국내 최초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수질환경 전문기업으로, 이번 엑센트리벤처스 투자는 환경기술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020년 6월 30일(화) 장소 : (주)엑센트리벤처스 광주센터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날 30일 오전 동구 아이플렉스광주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 전문기업 ‘㈜엑센트리벤처스 광주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시 청호환경개발(주)·㈜알파도 2개사 투자협약 병행 “본격적 AI기업 발굴·투자로 ‘AI 생태계’ 조성할 것”

㈜알파도는 IoT 데이터 모델링을 이용한 휴대용 분광기와 반려동물용 소변 자기진단키트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술보유 관련 향후 성장 가능성이에 대한 투자협약이다.

투자협약에 이어 AI 관외기업인 ㈜알파도는 광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광주에

동지를 틀 예정으로 광주 AI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섭 엑센트리벤처스 이사회의장은 “광주센터 개소를 기반으로 기업 발굴·엑셀러레이팅·투자 및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광주 AI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기자

## 전남도,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마쳐 7월 1일 실효...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 등

전라남도는 7월 1일 시행될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에 대한 대비를 모두 마쳤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공원 등 1천 725개소 24km에 대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관리계획을 정비했으며, 이중 목포 산정공원 등 4개소는 민간공영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간담회 개최와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보전녹지지역 지정,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도심외곽에 있거나 개발 우려가 없는 도로, 공원 등 2천 109개소 26km는 7월 1일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전남 도내 도시계획시설은 2만 6천 691개소 731km로 자동실효 대상은

6.8%인 3천 834개소 50km이다. 매입재원은 5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나, 시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오는 7월 시행될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실시계획 인가와 실효고시를 준비한 시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이내 사업 추진을 못하면 자동 실효된 제도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7월 1일 시행된다. /박은진 기자



광주시는 지난날 29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와 ‘함께 나눔 희망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시 제공

## “‘희망꾸러미’로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 차상위 장애인 2281명에 햇반, 참치 등 식료품 꾸러미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장애인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지난날 29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와 ‘함께 나눔 희망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함께 나눔 희망꾸러미’는 광주시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으로 마련됐다.

희망꾸러미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조리가 쉬운 간편식 위주의 활용도가 높은 햇반, 참치, 라면 등 총 12종으로 구성됐으며,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를 통해 차상위 장애인 2281명에게 전달된다.

이인춘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인 차상위 장애인분들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지원해 준 광주시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를 대표해 지역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꾸러미 전달이 지역 장애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힘을 낼 수 있는 희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검사 등으로 지역 감염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다시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오 기자



# 친환경쇼핑 남도장터

## ‘남도장터’는 전라남도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입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